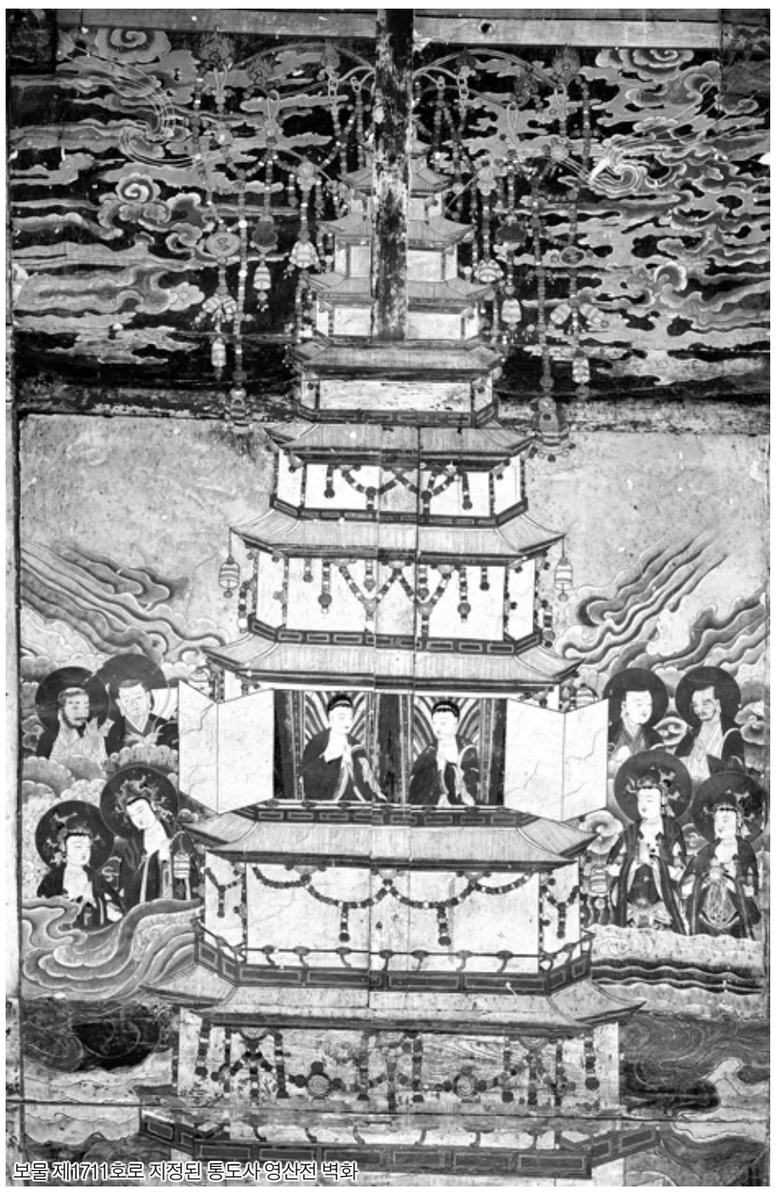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물 지정


보물 제1711호로 지정된 통도사 영산전 벽화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8세기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온 통도사 영산전 벽화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등 문화재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 보물 제1711호)' 는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보탑품변상도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이 벽화는 18세기 불교 회화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됐다.

보물 제1713호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는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일한 원간본(原刊本)으로 알려져 있다.

보물 제1714호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은 1364년에 쓴 사경이다. 변상도(變相圖), 사성기(寫成記),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돼 있어 불교사 및 사경 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보물 제1564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보물 제1208-2호인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春秋經左氏傳句解 卷六十~七十)', 보물 제1712호 '동인시화(東人詩話)' 가 보물 지정됐다.

이에 앞선 26일, 문화재청은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전남 유형문화재 제227호로 17세기 불상조각 연구 및 개금중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석가 · 약사 · 아미타여래의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운혜(雲惠) 스님이 수화승(首畵僧)으로 조성에 참여했다. 운혜 스님이 만든 불상은 작은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강조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을 한 점과 두터운 대의,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넓은 어깨와 무릎, 파도치듯 주름잡은 입체적인 옷주름이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후 운혜의 불상은 얼굴이 커지고 다소 딱딱해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운혜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얼굴 표현들을 하고 있다. 서동사 삼불좌상은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적 경향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송대에 이룩한 본초학 권위서로서 중국간본을 수입해 16세기 후반에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한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와 조선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도 보물 지정 예고됐다. 조동섭 기자

효탄·흥선·인묵·장적 스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미등 스님은 전문위원에

효탄 스님

흥선 스님

인묵 스님

미등 스님

올해 구성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80명 가운데 스님 3명, 전문위원 147명 가운데 1명의 스님이 포함돼 4명의 스님이 문화재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앞으로 2년간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할 위원 80명과 전문위원 147명을 위촉하고 4월 2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은 연임된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을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장 인묵 스님(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세계유산분과위원회) 등 4명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에 위촉됐다.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도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혜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외래교수,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등을 역임했다.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공예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불교어산학교장 인묵 스님은 1976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불교문화연구소장, 양주 회암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 의원, 자재암 주지, 중앙승가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이다.

세계유산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기획실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신문 주간과 서울 원통사 주지이다.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에 위촉된 미등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포천 흥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은사는 일면 스님. 1986년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미등 스님은 총무원 기획국장,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구성한 이번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 중 가급적 특정 대학 · 지역 · 분야 ·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위촉식 후, 문화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2년의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김리나 홍익대 교수(동산분과위원장)와 임돈희 동국대 교수(무형분과위원장)가 선출됐다.

각 분과별 위원장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박언곤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김리나 △사적분과위원장 노중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임돈희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이인규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지건길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김정동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박강철 △세계유산분과위원장 이상해이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한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문화재위원회에는 건축문화재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등 9개 분과가 있다.

'공' 의 이해 위해선 '수행' 뿐

중관사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국내에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Nāgārjuna)의 철학적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신상환 철학박사가 지난 10여 년간 인도 샨띠니께스탄에 살며, 용수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중론(근본중송)〉(도서출판b 刊) 의 산스크리뜨어, 티벳어, 한문 그리고 영문서적들을 비교 연구 한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신 박사는 용수의 생애와 저작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이부종륜론〉의 주해와 여러 티벳 자료들을 도표로 제작해 부록에 수록하며 티벳 전통에서 강조되는 밀교를 포함한 중관사상의 발전사를 같이 보아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박사는 '고통에서의 해방' 을 설파한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을 8불(不)중도 연기(緣起) 사상으로 보고 '이것이 바로 공(空)이다' 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결국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천진영 기자

흥국사 근대건축물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4월 29일 자로 '남양주 흥국사 대방' 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남양주 흥국사 대방' 은 정토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염불수행 공간과 누 · 승방 · 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 · 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이다. 흥국사 경내 중심 영역에 위치하며 1821년 건립 후 소실됐던 것을 1878년 중수했다.

문화재청은 "흥국사 대방은 기존의 단일 용도로 구성되던 전통적 법당 구성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 및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고복자 효사' 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 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 와 탁월한 그 '효과성' 과 놀라운 그 '귀신 · 사숭 · 산소탈등의 적시' 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 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인증 없이 여러곳에 장착됨)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착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곳에 장착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정가 : 450만원

2. 고귀명수 (좌정용 / 휴대용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면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정가 : 350만원

3. 효사육임산책 (휴대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휴대용입니다. 정가 : 250만원

4. 효사육인복변집 (좌정용 / 순별10일치씩 전6권)
위' 육임산책'을 좌정용으로 제본 되어 있습니다. 정가 : 250만원

5.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재액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 5만원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 대표전화 02)78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